

문어잡이 50대 어부 숨진 채 발견

지난 3일 문어 연승줄에 걸려 ... 대진 동방 0.8마일 해상서 조업 중

새벽에 문어잡이를 나갔던 50대 어부가 조업 중 바다에 빠져 그물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고성군 대진 동방 0.8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G호(2톤, 문어연승) 선장 김모씨(55세, 현내면)가 조업 중 바다에 빠져 연승줄에 걸린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이

던 H호 선장이 문어잡이 연승줄에 걸린 채 바다에 떠 있는 김씨를 발견했으며, 같은 해역에서 조업하던 D호와 함께 인양해 대진항으로 이송했다. 김씨는 119에 의해 속초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초 발견자인 H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새마을부녀회 무료급식 봉사



고성군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제16회 바다의 날 행사 기간 고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해양심층수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무료로 제공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을 찾아 음식을 맛보고 있다.

고성군 새마을부녀회(회장 강길자)는 지난달 개최된 제16회 바다의 날 및 제3회 관동별곡 8백리 걷기문화 축전 행사 주변 일대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새마을부녀회 회원 30여명은 행사기간 동안 고성을 찾은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해 해양 심층수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무료로 제공했다.

박승근 기자

베트남참전 전몰용사 추모제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고성군지회, 9일 오전 10시 참전기념탑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고성군지회(지회장 임양수)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대대리 베트남참전 기념탑에서 유관 기관단체장 및 유족, 국가유공자,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베트남참전 전몰용사 추모제를 개최한다.

이날 추모제는 개식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제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에 참전해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고성군지회 임양수 회장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 “45여년 전 처참했던 전쟁터를 마음속에

그리며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국 땅에서 조국에 대한 충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투에 참가해 산화한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고 추도할 계획이다.

임 회장은 “국민들은 해가 지날수록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에 대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풍요함과 자유와 평화, 행복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씨앗으로 얻은 소중한 열매임을 깨닫고 애국혼을 우리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지난해 열린 제5회 베트남참전 전몰용사 추모제에서 호국영령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전우회 회원들 모습.

가족 체육대회 10월에 열기로

재경고성군민회 운영위원 확대회의 개최

재경고성군민회(회장 지승연)는 지난 1일 오후 7시 강원도 민회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임원진 및 운영위원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1년 상반기 수지결산 보고와 사업보고 및 업무보고, 체육대회 개최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고성군민회는 하반기 주

요 일정으로 10월 9일 등촌중학교에서 제3회 재경고성군민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거진해변 만남의 광장에서 열리는 고성 명태와 바다축제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11월 초 순에는 임원진 및 운영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재경고성군민회 지승연 회장은 “땀은 고향을 떠나 있지만,



지난 1일 열린 재경고성군민회 제6대 임원진 및 운영위원 확대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고향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살자”며 “10월

개최되는 가족체육대회와 고향에서 열리는 명태와 바다축제

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